

# “충북사회복지신문 3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 지역사회복지 발전 더욱 기여하길...

먼저, 충북사회복지신문 제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창간호(1998년) 발행인으로서, 벌써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300호를 맞이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신문 발간 20주년 포럼행사에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받으며 축하 인사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간호 발간 당시, 충북사회복지신문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슈)과 시설(기관)의 소식을 다루며 전국 유일 사회복지신문으로 자리매김되어



(제9대~12대 회장) 표갑수

매우 자랑스럽고 뜻깊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충북사회복지신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받길 희망하며, 다가올 30주년과 400호 발간까지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의 역사가 이어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충북사회복지신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 기대

충북사회복지신문의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8년 4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 복지동향을 안내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와 함께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실천하겠다고 창간호를 발행한 지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충북사회복지신문이 도내는 물론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 정보와 이슈 등을 다루며 성장했고, 발간주체인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위상도 함께 커졌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복지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복지기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대상과 욕구가 다양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사회복지계의 주도적인 관점을 유지해나가는 동반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 법입니다. 충북사회복지신문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밀착취재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리라 믿습니다.



(제13대~14대 회장) 김창기

지시사항의 규모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대상과 욕구가 다양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사회복지계의 주도적인 관점을 유지해나가는 동반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 법입니다. 충북사회복지신문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밀착취재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리라 믿습니다.

## 복지정보 제공 역할 수행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한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복지계의 정보를 나누고 사회복지를 선도하며,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지령 3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눈부신 발전의 뒤안길에 양극화의 증명이 있고 여전히 사회안정망은 미약합니다. 계층간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격차의 원인이자 결과인 이념적 대립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형은 경제적 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보수와 진보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견제차가 늘어나면 소득격차도 늘어남은 학설이 있습니다. 선진사회는 정치적으로 화



(제15대 회장) 심인보

합하며 경제적으로 관용의 사회입니다. 나눔과 기부가 개인적 관용이라면 복지와 분배는 사회적 관용이며 탐욕을 넘어선 개인, 넓게 뿌리 내린 사회적 관용은 선진사회의 필수입니다. 건전한 비평과 공정한 보도,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으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신문!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신문 발간 예산 증액, 전담 직원 확보 기대

충북사회복지신문은 1998년 4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2024년 4월에 지령 300호를 발간하게 됩니다.

먼저 충북사회복지신문 지령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애써주신 편집위원님들과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북사회복지신문은 매월 발행하는 관계로,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보다 지난 소식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외면받아 온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지령 300호 발간을 계기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믿고 찾는 신문으로 거듭나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16대~17대 회장) 김영석

이를 위해서는 신문 발간 예산의 증액과 함께 전담 직원 확보를 장기과제로 정해서 단계별 실천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지면 구성도, 지난 소식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이슈 토크나 새로운 정책 소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령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18년 역사 이어온 신문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봉사단  
 2006년 10월 결성... 1,178회 이상 활동

충북사회복지신문은 1998년 창간호를 발간해 2024년 4월 제300호 기념, 신문 배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신문봉사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문봉사단은 2006년 10월 봉사단체를 결성하여, 지난 18년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기준 봉사일수 1,178회, 봉사시간 3,253시간 이상을 이어오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매월 신문이 배포되기 전 약 2,000여부의 신문을 알맞게 접어 주소록 봉투에 밀봉하는 작업을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쳐 전국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정기구독자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다.

특히, 평균 나이 73세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편집자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에서 발행하는 '충북사회복지신문'은 1998년 4월 창간호를 발간해 현재까지 26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 정책,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소식, 사회복지 이슈 진단, 사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신문봉사단원.

회복지 분야 오피니언 등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 정보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며, 매월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유관기관, 충북도민 등을 대상으로 약 2,000부가 배포되고 있다.

현재 전국 유일 사회복지신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월 3,300부(연 3만96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이에 '충북사회복지'신문 제300호를 맞이하여 신문 배포에 크게 기여해 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신문봉사단(단장 이희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문봉사단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기준 2006년 10월에 결성되어 18년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간 봉사일수 1,178회, 봉사시간 3,253시간 이상을 이어오며 '충북사회복지'신문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오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신문이 발행되기 전까지 많은 절차를 거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문 제작 이후 배포 과정이다.

봉사단원들의 평균연령은 약 73세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0여부의 신문을 개별로 알맞게 접어 주소록 봉투에 밀봉하는 포장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신문 배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문봉사단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신문발송 부수량으로 인해 조금은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일평균 3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신문이 원활히 배포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신문봉사단 일부 단원들은 그간 헌신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충청북도지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문봉사단을 결성한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이희일 단장은 "봉사단이 결성된지도 어느덧 18년이 되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

### 충북사회복지신문 제300호 특집 기획

- 1면  
- 협의회 설립이후 역대 회장 축하인사말  
- '신문봉사단' 소개
- 6면  
- 도내 역사가 깊은 사회복지법인 소개  
- 충북광역푸드뱅크 우수기부업체 소개
- 8면  
- 언론사 5개사 축하메세지  
- 구독자 이벤트

로 어르신들이 매달 봉사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늘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봉사단원들은 "세월이 흘러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나이가 됐지만, 신문 봉사는 현재까지 부담없이 할 수 있어 봉사활동 날이 매번 기다리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 담당자는 "신문을 제작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 때문 지치지 않지만 매달 발송작업을 하며 땀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에 힘을 얻기도 한다"며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뜻깊다"고 말했다.

## 부담되는 목돈수술비

# 의료비후불제와 함께하세요!

**신청자격** 도내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질환** 임플란트, 슬관절 인공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대출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후견인)

**대출한도** 1인 50만원~300만원(이자는 도에서 지원)

**상환조건**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문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220-3192~3194**

# 단양군보건의료원, 5월부터 '시범운영'

오는 7월 1일 개원  
63종 최신 의료장비 갖춰



오는 7월 1일 개원을 앞둔 단양군의료원 전경.

단양군의 의료복지 새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군은 오는 7월 1일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새로운 의료진의 첫 출근과 함께 최신식 의료 장비와 고사양 구급차 등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실 간호사 등 12명의 의료진은 지난 1일 첫 출근을 시작해 의료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의료진들은 약 한 달간 의약품과 소모품을 구비하고 의료 장비 시범운영, 진료 동선 파악 등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검토하며 개원 준비를 돕는다.

의료원에는 63종의 최신·최고 사양 의료 장비가 순차적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관내 최초 CT를 도입하는 등 5월경 모든 의료 장비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 사양의 특수 구급차를 도입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을 책임진다.

이로써 군 보건의료원은 총 10개 과목을 진료하게 됐으며 군은

소생술 장치와 구급 장비 패키지가 장착돼 차량 내에서 각종 처치와 시술을 할 수 있다.

또 의료 협약 병원에서 내달부터 비뇨기과와 소아청소년과 우수 의료진이 파견돼 주 1회 진료가 이뤄진다.

이로써 군 보건의료원은 총 10개 과목을 진료하게 됐으며 군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이 있는 지자체가 됐다.

군 보건의료원 청사는 기존 보건소 건물과 신관 건물이 통로로 연결된다.

신관에서는 진료와 검사 등 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보건소 공간은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진료실과 검사실이 모두 이전되는 8일부터 의료 관련 접수는 신관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식개원 전까지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겠다"며 "성공적인 보건의료원 개원을 위해 모든 직원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음성군, 청소년 대중교통비 '첫 지급'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시 신청... 10만원 교통카드 배부

음성군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교통비를 처음으로 지급했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한 총 2470명에 대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신청자 수령 희망지(학교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배부했다.

배부한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단말기가 부착된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8일 이후

신청한 사람은 6월 중에 배부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보호자이며, 후견인 등 사실상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는 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검색 후 신청하거나 관

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수령 후 바로 사용 가능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신청을 독려했다.

# 제천시, 장애인 홈페이지 '복지다담' 이달 오픈

분산된 복지·맞춤정보 통합 제공, '자립기반 마련'

제천시는 장애인의 자립기회 마련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복지다담'이 이달 말 정식 오픈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청 박달재실에서 김창규 시장과 장애인복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

근성을 높이고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홈페이지의 제작과정과 결과물 등을 공유했다.

이어 사용자의 피드백과 의견을 수렴하고 홈페이지 향후 유지보수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도 논의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제천시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복지다담'은 분산된 복지정보를 한 곳

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유니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용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 청주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병원동행서비스

권역별 수행기관 6곳서 노인돌봄차량 '돌보미' 활용



청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한다.

청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청원구에서 시범 운영

한 '이동지원서비스'의 명칭을 바꾸고, 서비스 지역을 4개 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수행기관은 사회적협

동조합 휴먼케어(이사장 송유정),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중), 청주시원노인복지관(관장 유길준),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원장 서유리), 목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준우)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씩 이용할 수 있다.

노인돌봄 전용차량 '돌보미'로 병원에 이동한 뒤 돌봄매니저가 접수, 수납, 진료, 약 처방을 도와준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추진

오는 5월부터,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지원

청주시는 오는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물론,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생신고를 청주에 하고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산후조리비 위

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산후조리비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

행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사업 시행일(5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보건소 모자보건실(상당보건소 ☎043-201-4831, 서원보건소 ☎043-201-3270, 3272, 흥덕보건소 ☎043-201-3365, 청원보건소 ☎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가정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 충주시,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 제작

어려운 이웃의 올바른 의료 이용 안내

충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의료급여제도와 유의사항 등이 담긴 '2024년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를 제작했다.

이 책자에는 올해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료급여 지원제도, 유의사항,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제도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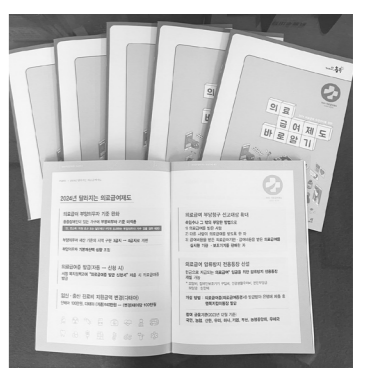
시는 제작된 책자를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수급자, 복지시설, 병·의원 등에 배부하였으며, 신규 의료급

여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관리사가 방문·전화상담 및 교육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변근세 복지정책과장은 "이 책자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생



충주시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해 제작한 '2024년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

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중증질환등록, 본인부담 보상금, 청·장년층 물니·임플란트 지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각종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증평군이 지난 13일 증평군립도서관 광장에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신규 지정에 따른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 증평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판 제막식

### 10주년에 정부 공모 선정

증평군이 지난 13일 증평군립도서관 광장에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신규 지정에 따른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평생학습관이 위치한 증평군립도서관의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 이동령 군

의장과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를 더했다. 군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

으며, 국비 3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하나로 소통하는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평생학습관과 장애인 복지관이 상호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식 개선교육, 기초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장애인학습 매니저 양성교육, 인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포인트 지급

### A타입 연 30만원, B타입 연 10만원 지급

보은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포인트를 군내 청소년 164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연령에 따라 13~18세 미만(이하 A타입) 1030명에게 연 30만원씩 총 3억900만원,

8~12세미만(이하 B타입) 610명에게 연 10만원씩 총 6100만원 등 모두 3억70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A타입의 경우 서점 30% 이상, 그 외 문구점·이미용실·안경점, 편의점 등의 가맹점에

서 70% 이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별 비율은 B타입의 경우 독서 권장을 위해 서점 50% 이상, 문구 50% 이하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 카드 누리집(boeun.dvous.or.kr)에서 가맹점 현황·사용 내역, 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월 20일까지로 미사용 포인트

## 옥천군,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 홀로 사는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옥천군은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일상돌봄서비스'의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

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 및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청·중장년(19~64세),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13~39세)이다. 대상자로 선정 시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또는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중 선택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본 6개월간 이용할 수 있고 재판정 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신분증, 증명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43-730-3313)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민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괴산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 올해부터 당원병 환자 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

괴산군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1189개에서 1272개(희귀질환 1248개, 중증난치질환 24개)로 확대됐으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돼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

아야 해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환자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저하할 우려가 크다. 괴산군보건소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건강과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희귀질환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당원병 환자에게 옥수수전분 구입비도 지원한다.

등록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수급자로 선정하게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가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보건소 방문보건팀(☎043-830-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괴산군,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 추진

### 괴산의 농촌지역 마을인구 유입 기대



괴산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괴산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1단계 5개 마을, 2단계 5개 마을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의 추진 배경, 목적과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1단계 사업에 선정된 5개 마을은 괴산읍 제월1리, 감물면 상유창마을, 칠성면 갈문마을, 청천면 선평1리, 사리면 문화마을로 관내의 청장년층(40~60세)이 마을 인구의 30% 이상이며, 발전 가능성이 높고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마을이 선정됐

다. 2단계 마을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을 추진한 5개 마을로 칠성면 내두마을, 송동마을, 청천면 삼송1리, 청안면 운곡1리, 불정면 사현마을이 선정됐다. 1단계 마을에는 마을당 500만원이 지원되며, 꽃밭, 꽃길, 환경정비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화합과 동기부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단계 마을에는 마을별로 3000만원 또는 1500만원이 지원되며, 마을의 공동문화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리더 역량강화교육, 관내 우수마을 견학, 중간평가, 최종평가성 과보고회를 거쳐 1단계 5개 마을 중 2단계 3개 마을을 선정해 내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인현 군수는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갖춘 선진마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서 괴산의 농촌지역 마을 인구 유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영동군, 빈집 실태조사로 주거환경 개선

### 장기간 방치된 주택 문제 대응

영동군이 한국부동산원과 손을 잡고 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기간 방치된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5년마다 시행되는 전수 조사다. 빈집 실태 조사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를 통해 정확한 빈집 데이

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정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는 사전 조사, 현장 방문 등 급 산정의 세 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군은 사전 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선별하고 이후 현장 방문과 소유자 면담을 통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된 빈집은 상태와 위해성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된

다. 1~2등급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해 임대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며 3등급으로 분류된 빈집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 철거가 필요한 상태다. 3등급으로 분류되면 군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영동군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심의·발표

### 장애아 어린이집 62곳 추가 확충... 발달검사 무료 등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는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340명 대상으로 24시간 개별지원 하고, 주간에는 개별 및 그룹형으로 2000명에게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곳에서 16곳으로 4곳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 지원 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리며,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은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62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발달 정밀 검사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1인당 연간 35만원 교육비 지

원제도 지원은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금 기초급 여역의 경우 3.6% 인상하고 부가급역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리며, 장애인 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액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인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은 태아 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의 중요 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 법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활동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 210명을 모집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의 중요 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 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총자산 3000억원 돌파

### 회원저축상품 우대금리 0.5%p 인상·종사자 생활안정 기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가 안정적 자산운용과 철저한 리스크관리 등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올해 2월 29일 기준, 총자산 3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00억원, 2023년 2000억원 달성에 이어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공제회는 자산 3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창출된 수익을 회원의 생활 안정과 종사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저축상품(장기저축급여) 우대금리 0.5%p 인상 및 우수기관 포상 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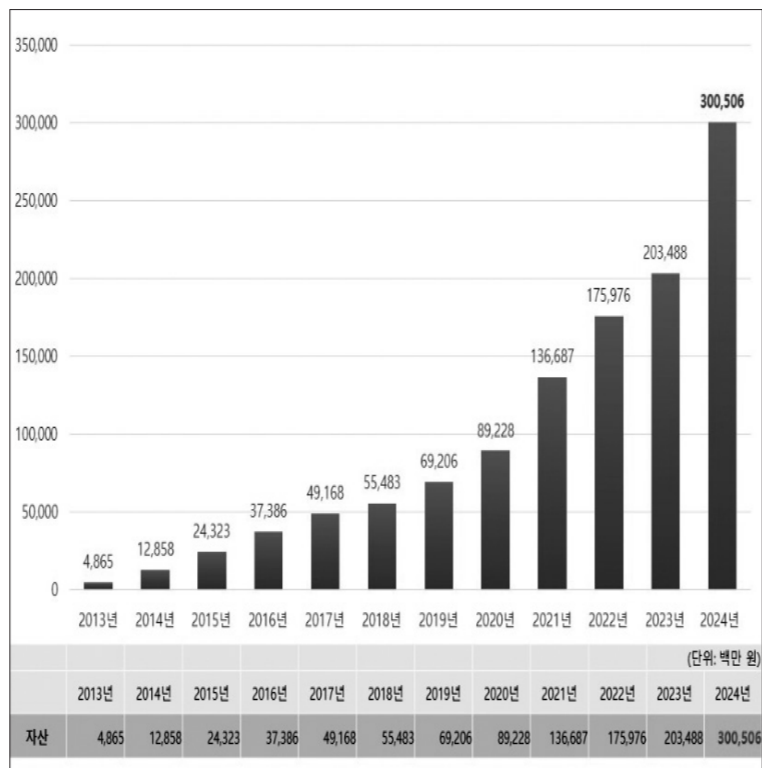
우대금리 인상에 따라 장기저축급여의 상품별 이자율은 단기 환산 및 세제 혜택 반영 시 3년 만기 최대 5.75%, 5년 만기 최대 6.27%, 10년 만기 최대

7.63%로 오른다(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또한 공제회 성장·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 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해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금액은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차등 책정하며, 포상 규모는 총 3억8000만원이다.

강선경 이사장은 "공제회의 성장과 자산 3000억 달성은 고물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제회를 믿고 지지해주신 사회복지기관과 회원 덕분"이라며 "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물론 적극적인 공제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자산운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우대금리 인상



연도별 자산 변동 추이. 출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내용 및 우수기관 포상 계획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년전보다 개선

### 복지부, 2024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설치 비율은 상

승했지만, 법적 기준에 맞도록 설치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은 2018년 80.2%에

오로 설치율이 높았던 반면, 휠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 등 비차용품(52.9%),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안내시설(73.7%)은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93.4%),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89.2%),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84.9%)은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이어 "적정설치율은 4.4%포인트 상승해 설치율 향상에 맞춰 질적 향상에 미흡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알뜰교통카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 적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손쉬운 회원 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

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내달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부정수급 사례 예방 위해... 응급 환자 경우 등 예외



건강보험증 대어·도용 적발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으며, 이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환자가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어·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명의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이며, 지난해 2월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바 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 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신청 가능, 대상자 기준 확대 등



거주지 내 설치 기기 종류.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거나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밤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

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5000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올해부터 매 대 고령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 옥천군, 치매전담요양원 개원



옥천군은 지난 18일 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150억 투입·2965㎡ 규모… 본격 운영 물리치료실 등 고령 친화 인프라 구축

옥천군이 노인이 행복한 고령 친화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사회적협동조합 두루살기강회권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옥천노인복지관 풍물단과 정순철짜짜꿍어린이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옥천군이 설치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두루살기강회권이 위탁 운영하는 치매전담형 장

기요양기관이다. 군은 국비 등 150억원을 투입해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2965㎡ 규모로 건립했다. 요양원은 총 24개실(1·3·4인실)이 6개 유니트(난초, 국화, 매화, 금빛, 해찬, 별빛 마을)로 구성돼 70명의 치매 노인이 생활할 수 있다. 1층에는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면회실, 대강당 등 입소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2층에는 치매 노인 놀이터인 병설 주야간보호센터를 마련했다. 군은 고령화 시대에 옥천군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을 통해 치매 노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철 군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옥천군 공립 치매전문노인요양원을 개원한다”며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국가책임제의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의 삶 ‘인생기록’ 남긴다

### 장애인지원복지관-장애인단체연합회 영상제작 협력

충북장애인지원복지관(관장 이승환)과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변창수)가 지난 9일 충북장애인지원관에서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 제작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영상으로 남기고 공유해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담은 ‘인생기록 영상’ 제작에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도내 장애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미디어를 통해 도민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생기록 영상 제작에 협력할 방침이다. 제작 영상은 유튜브 채널 ‘충북 영상자서전’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복지관 광역복지팀(☎043-856-1100, 내선 5번)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장애인지원복지관과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가 지난 9일 장애인 인생기록 영상 제작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승환 관장은 “충북 장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미디어로 전달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신장을 돕고, 장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원지역자활센터, 저소득층가구 주거환경 개선

### 청주청남라이온스클럽 봉사

청원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호)와 청주청남라이온스클럽(회장 임경목)이 지난 9일 청주시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정집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는 청원지역자활센터의 신박한정리 사업단이 행정복지센터와 청주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정주남)와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의



청원지역자활센터와 청주청남라이온스클럽은 지난 9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정집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쓰레기 처리, 청소, 정리 등을 하는 사업에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청주청남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추진했다. 임경목 회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고민해 왔으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센터장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민·관이 함께 풀어가며 환경의 변화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6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센터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 “열정과 헌신으로 이웃사랑 실천 30년 축하”

### 괴산군자원봉사센터 기념식 장기봉사자 6명에 공로패 등

괴산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규서)가 지난 16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센터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현 괴산군수, 신승국 괴산군의회의장, 이태훈 충북도의원, 이규서 괴산군자원봉사센터장, 김성식 충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설립 30주년을 축하

하고, 열정과 헌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열렸으며,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장기봉사자 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2024년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이 진행됐다. 올해 자원봉사 릴레이의 첫 주자는 불정면자치봉사회(회장 박옥선)로 송인현 군수가 전달한 릴레이 깃발을 받아, 17일 봉사활동

을 실시한다. 자원봉사 릴레이는 괴산군 100개 기관·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행사로 1년 365일 끊임없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봉사정신을 확산하고 나눔의 온기를 전파하는 활동이다. 송인현 군수는 “괴산군자원봉사센터의 설립 30주년과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충북도보조기기센터, 개조·제작 서비스 재가동

### LH, 안정적 운영 무상 지원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김종석, 이하 보조기기센터)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내 장애인·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 및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자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2021년 10월부터 작년 12월

까지 2년간 청주 도시계획시설(명심근린공원) 사업에 조성될 부지 중 개조 및 제작실이 포함되어 보조기기센터의 개조 제작 공구(장비)를 컨테이너에 담아 임시 보관하여 개조·제작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충청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이하 LH)에 기존 개조 및 제작실 부지를 명심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LH는 보조기

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상 사용을 협조해주었다. 또한,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는 2024년 지역보조기기센터 기능보강·특성화 사업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인성) 배분 사업 선정으로 개조 및 제작실 이전 후 서비스 재가동을 위한 각종 재료와 전문가용 3D프린터 등을 확보했고, 장애인·노인 욕구 맞춤형 자체 보급 사업 등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성장멘토링’ 발대식

### 자기관리능력 향상·정서적 지지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공익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원하는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발대식을 실시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부모를 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멘토 제도를 통해 멘티의 자기관리능력 향상과 정서적 지지 등 부족한 양육환경을 보충해 건강한 멘티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에서는 멘티 및 멘토, 멘티부모를 대상으로 성장멘토링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공익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원하는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발대식을 실시했다.

주요활동 내용 안내 및 멘티·멘토 매칭식, 서약서 낭독, 나에게 쓰는 편지 작성, 커플별 및 단체 사진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멘티 9명, 멘토 9명이며

협회지원을 통해 7커플을 지원하며 복지관 내부지원을 통해 2커플을 지원한다.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사례지원팀(☎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

#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www.043w.or.kr

정답은 **충북복지넷**!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 사회복지 역사가 깊은 '충북현양복지재단'

## 설립 66년, 밝은 빛으로 다시 도약하는 현양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현양복지재단 전경.



지나해 설립 65주년을 맞아 사명선언식을 진행했다.

### 산하기관 10개소 운영... 청주노인요양원, 은빛양로원 '100년' 역사 지녀 지나해 법인설립 65주년 기념 '사명선언식' 개최... 복지공동체 구축 다짐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현양복지재단은 '사회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주자'는 설립 이념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나해 설립 65주년을 맞아 재단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사명선언식'을 진행하여 비전, 핵심가치 등을 재수립해 복지공동체 구축을 다짐하기도 했다.

충북현양복지재단은 아동·노인·정신요양·노숙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소의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시설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기관 선정, 청주지역 최초 무료급식서비스 제공 등 복지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박인회(朴仁會, 노인생활시설 시초)로부터 이어진 '효 실천' 사상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100년이 넘는 노인복지사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내 사회복지 역사가 깊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현양복지재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충북현양복지재단(대표이사 김명성)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주자'는 설립 이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58년 당시 17세였던 고(故)박성택 설립자는 불우아동과 구두담이 소년 등 120명을 모아 '현양공민학원'을 설립하였고, 그 이후 질 좋은 교육 제공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내 최초의 '현양분교장'을 신축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생활시설의 시초라 할 수 있는 1919년에 발족한 박인회(朴仁會)의 사업을 이전받았으며, 12년간 청주시립양로원을 운영하던 청주시가 1976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폐쇄를 결정하였을 때,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故)박성택 설립자는 시립양로원을 위탁운영 하기도 했다.

이에,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청주시립양로원을 자비로 매입하여 '청주양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인회로부터 이어진 조상들의 열인 '효 실천' 사상의 명맥을 이어 '청주노인요양원'과 '은빛양로원'이 100년이 넘는

노인복지사업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재단이 소유한 부지(대지 4924㎡)를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고 '용담초등학교 현양원분교장'을 신축해 교육환경 개선 및 전인적인 개별과 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충북현양복지재단 산하기관의 특화사업을 소개하자면, 첫째로 아동양육시설인 '현양원'은 2002년 시설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을 지원했다.

이어, 2016년 아동들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례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1988년에 설립한 청주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이후 중앙공원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청주지역 최초'로 무료급식서비스 제공하였으며, 2007년 '아토피 한방 무료진료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400여명의 아동·청소년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경제교실 거점센터 선정 및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와 '성덕원'에서는 주민등록이 말

소된 노숙인 입소 시 말소 복원 등을 지원하고, 통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연결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제공,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심리프로그램, 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입소자의 사회복귀에 힘쓰고 있다.

충북현양복지재단은 지나해 설립 65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설립이념과 중심가치를 실천전반에 녹여내고 현 시대에 적합한 재단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명, 비전, 핵심가치를 재수립했다.

전 구성원들은 사명선언식을 통해 "나눔과 소통의 가치로 이웃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밝은 빛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실천에 의지를 다지고 '밝은 빛으로 다시 도약하는 현양'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선도하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성 대표이사는 "사명실천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현양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한위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재단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힘을 믿고 동기부여 하는 것이 주된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현양복지재단은 '현양'이라는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누며 이웃들이 상상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해오고 있다.

# 충북광역푸드뱅크 우수기부업체 '흥국에프엔비'

## "세상을 더 신선하게 만드는 감동"



음성군에 위치한 흥국에프엔비 전경.



흥국에프엔비에서 기부한 물품을 수령하고 있다.



과일 농축액, 음료베이스, 커피베이스 제품.

### 2000년 설립, 국내 카페 문화와 더불어 성장...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진행 지나해 제24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유공자 선정 '충청북도지사 표창' 수여

설립 20여년이 넘는 흥국에프엔비는 "세상을 더 신선하게"라는 목표로 카페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집에서 신선한 과일음료와 커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흥국에프엔비의 가장 유명한 제품은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착즙주스에 사용되는 '자몽농축액'으로 카페를 자주 방문한다면 한 번쯤은 제품을 맛봤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자몽농축액을 개발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사업 영역을 넓혀 2011년 충북 음성에 공장을 준공하였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충북광역푸드뱅크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고자 꾸준한 제품 기부와 취약계층 성금 기탁 및 생필품 후원 등으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광역푸드뱅크 우수기부업체로 선정되는 동시에 충북사회복지대회의 유공자로 추천되어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충북사회복지신문 제300호를 맞이하여, 충북광역푸드뱅크의 우수기부업체인 흥국에프엔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2000년에 설립해 어느덧 20여년이 넘는 흥국에프엔비(대표이사 박철범)는 '프리미엄 식품료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맛과 향이 살아있는 비가열 식품료료를 통해 온 세상을 더 신선한 맛으로 물들이고, 점점 확일화되어 가는 대량생산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먹거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 분야 연구원이 과일 농축액, 커피 베이스, 식품·식음료 OEM/ODM 등 프리미엄 식품료를 개발·제조하고 국내·외 300여 개의 거래처와 다양한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 공급하는 카페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기업명이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카페를 자주 간다면 최소한 번 이상은 흥국에프엔비의 제품을 맛봤다고 볼 수 있다. 흥국에프엔비의 가장 유명한 제품은 '자몽농축액'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은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착즙주스이며, 2000년대 후반 자몽농축액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자 다양한 과일을 활용한 농축액과 음료 베이스, 착즙주스 등으로 사업군을 확장했다.

시장이 커지는 동시에 자체 생산으로 전향하여 2011년 충북 음성에 공장을 준공하며 설비투자도 점차 늘었고, 조고압력을 통해 미생물을 제어하는 기술인 초고압 처리기(HPP)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가열살균 방식과 달리 원료 고유의 맛과 향을 보존하고, 영양소의 열변성을 최소화하여 신선한 상태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흥국에프엔비는 연 매출 700억원을 달성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음성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활동 및 생필품을 후원하고 취약계층에 약 1000만원의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연 3000만원 상당의 성금 기부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본사에서 생산 및 수입하는 제품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고자 충북광역푸드뱅크(회장 유용모)를 통해 음료, 베이커리, 토핑, 커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과 간단하게 물, 우유 등과 혼합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기부했다.

현재까지 41만9560개의 제품(약 5억1000만원 상당)을 기부하여 도내 기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부 물품은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손쉽게 제조하여 마실 수 있어 푸드뱅크 이용자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이를 계기로 지나해 제천에서 개최된 '제24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의 유공자로 추천되어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에, 조금 더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 2월 19일 밀양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1년 6개월에 걸쳐 양사가 함께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약속하며, 흥국에프엔비 임직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새학기 키트, 원목가구, 태양광 랜턴을 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물품들은 밀양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철범 대표이사는 "충북지역 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충북광역푸드뱅크를 통해 꾸준한 기부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며 "자연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사회를 신선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푸드뱅크 이용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흥국에프엔비는 자연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식·음료를 통해 세상을 더욱 신선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주력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제품생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복지광장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을 들여다보며



김 경 섭 단양장애인복지관장

정부는 3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발표하였으며, 우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보다 개인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많은 자유와 독립성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사회적 포용과 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당사자 개인에게 일정 금액의 예산이 배정되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공공서비스 모델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호도와 필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급여 유연화’ 모델은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10% 안쪽)를 떼어내 공공서비스(재활, 긴급 돌봄 등)나 민간서비스(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에 쓸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은 기존 활동 지원 급여의 20% 안에서 간호사·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보행지도사 같은 인력의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모의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 예산 비율(활동 지원 급여의 10~20%)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 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으며,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8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목적성에 맞는 예산의 증액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의 확장이 필요하며, 선지급하고 후 정산을 받는 본인 부담금의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계획 수립 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료상담 혹은 지원사 등의 지원 및 매칭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다양한 지원체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목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기반한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취약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복지포럼

제44회 장애인의 날의 반성



황 명 구 옥천군장애인복지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립의지를 높이며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4월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이유는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81년 유엔은 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장했으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립의지를 높이며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립의지를 높이며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그러나 당시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991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이렇게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제44회를 맞이한다.

이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의 복지정책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만든 법이다.

또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장애인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다.

이렇듯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반인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서울 지하철 농성 등 마찰이 있을 때마다 마치 장애인만의 문제인 양 호도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해의 폭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넓혀야 한다.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과 장애인가족의 삶은 존엄성 보장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마흔 네돌을 맞이하는 2024년 ‘장애인의 날’ 우리 모두 생각하고 반성해 보자.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다양성과 포용을 기리며, 더 나은 사회참여를 위해 한발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들의 삶과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사는 운명공동체이다. 잊지 말자. 삶의 평화를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야 한다. 누구도 장애에 자유로운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사례관리, 사례관리자로서



이 범 수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필자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 군복무를 마친 뒤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 교육과정 이수, 실습, 봉사 등 모든과정을 통해 현재는 3년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고 있다.

시작은 지역조직화사업을 담당하여 사회복지의 첫걸음을 떼었고 그 후 사회복지자를 하고자 하는 이유였던 사례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당사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러한 마음과 의지가 나의 삶과 사회복지사로서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기에 원하지 않았던 업무를 맡게 되었어도, 내가 원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이 아님에도 버틸 수 있었다.

다만, 방향과 목적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려하니 이것이 내가 하고자 했던 사회복지자 사례관리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걸음을 멈춰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벼랑끝에 섰을 때쯤, 사례관리 학습모임 ‘다음’ 3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고 배우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그 걱정은 사치였고 난 곧 깨닫게 됐다.

그저 책으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모임에 같이 참여하는 선배 및 동료 사회복지사들의 노력과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었다.

또 나의 정처 없던 걸음이 방향을 정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였고, 나아가갈 길이 있으니 그 길을 당사자와 함께 걸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

사례관리라는 말은 사람마다 기관마다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적어도 나는 ‘다음’ 3기에 참여하며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를 통해 보게 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례관리는 당사자를 개인 또는 가구단위로 개별화하여 상당 기간 함께하면서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다.

필자는 이것을 이루기엔 어느 당사자에게는 몇 개월 일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일례로 어느 당사자에게 몇 개월 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그 반침이 되는 자원을 연결해 주며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았다.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칭찬과 인정을 받았음에도 기쁘지 않았고 그저 그 당사자와 사례관리자인 내가 가야 할

길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각 복지관의 선배 사례관리자는 당사자의 좌절과 실패, 고통을 겪으며 5년 동안 같이 걸어온 결과,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했던 당사자가 스스로 장을 보고,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상당 기간 함께하며 욕구(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쉽게 ‘칭찬’과 ‘인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사례관리자의 ‘노력’을 알아봐 주고, ‘믿음’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물질적 자원을 투입한 것을 기준으로 ‘잘했다’와 ‘못했다’로 나누지 않는 시선이 우리 충북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례관리자가 당사자와 상당기간 함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에 대한 기관의 믿음, 업무 유지성 부여 등 기관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의 일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관리’는 ‘사람관리’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관리’로 해석해 진행하고자 하면 첫째로, 당사자가 불쾌해할지 모른다.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기관 및 사회복지사는 그를 전인격적 약자로 보고 그의 인생을 관리하려고 하니 불쾌해 한다. 단지 이 일을 조금 거들어 달라고 한 것뿐인데.

둘째로, 당사자가 모든 것을 의존하려 할지 모른다.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지만 부탁을 넘어서 모든 것을 대신

해 주겠다고, 그의 인생을 관리해 주겠다고 한다.

‘사람관리’로 해석하여 도우니 당사자의 자존심과 염치가 사라지며, 사회복지사의 부담이 날로 늘어간다. 다 해주겠다고 했으니 이제 욕망으로 변해버린 당사자의 욕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저앉고 말 것이다. 여기까지가 소개이다.

당사자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당사자와 함께 걷는 사례관리자라고 생각하며, 어느 당사자에게는 이 정도까지의 도움만 필요하여 거기까지 도왔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만 도왔느냐고 저기 멀리까지 도우라는 말은 위에 소개한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후원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내방하였고, 사례관리자는 간단한 대화 후 물품을 전달하며 어느 때와 같이 당사자를 보내려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물품과 함께 당사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라고 한다. 그 당사자는 물품을 집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물품을 지원받으러 왔다고,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이 아니다.

사례관리자는 당사자와 함께 걸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례관리자와 함께 걸어주어야 한다.

나는 우리 충북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이 그러한 곳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같이 걸어가는 동료, 앞서 걸어간 선배 사례관리자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똑똑똑! 법률상담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A(60세, 남)씨는 어느 날 B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한 한 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A씨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위해 거래내역을 추적해야 하니, 자기가 불러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두렵고 당황스러워 전화를 끊자마자 현금지급기로 달려가 수사관이라는 자가 불러준 계좌번호로 자신의 예금 1000만원을 모두 송금하였습니다.

현금지급기에서 돌아서자마자 A씨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방송을 본 기억이 떠올라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2011년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사기계좌로 입금된 돈을 불과 몇 분 사이에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금이 사기범의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금 환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청 112 콜센터를 통해 피해 경위를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을 발급받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금이 들어 있는 사기계좌 명의인(대부분 사기범이 아닌 타인, 대표통장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인데,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이 결정되면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계좌의 잔액이 전체 피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금 액수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지급될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지역사회봉사단

신문봉사단, 환경정화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도) 소속 신문봉사단(단장 이희일)은 지난 13일 보은군 속리산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신문봉사단은 봄을 맞이하여 이전과 다른 봉사활동을 기획하

여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 일대를 방문하였다.

소속 단원들은 "따뜻한 봄날씨에 속리산 관광객들이 더욱 많아져 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났 것 같다"며 "평소 활동분야와 다른 기회가 생겨 새롭고, 속리산을 찾

은 관광객들이 깨끗한 경관을 즐기는데 보탬이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신문봉사단은 2010년 5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충북사회복지신문 발송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언론사 축하 메시지

소외계층에 대변지이자 파수대 역할



조석준 동양일보 사장

1998년부터 지역 사회 복지 발전과 의식 전환을 위해 묵묵히 맡아 오고 있는 '충북사회복지신문'의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과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인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인간으로서 누구나 추구하는 삶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기침체, 고물가 등 각종 악조건 속에서 재정적 지원, 제도적 보완, 계층별 인식구조 개선 등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사회는 물론, 관계 당국과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충북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대변지이자 파수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앞장서 주길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충북 미래과제 밝힐 등대 역할 기대



한인섭 중부매일 대표이사

복지신문의 지령 3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충북사회복지'라는 종이신문이 학계 전문가와 업계, 지자체 등 관련분야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 지역신문 종사자이자 언론인으로서 함께 긍지를 느낍니다. 1호를 발행한 이후 독자들과 변함없이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하고 있

는 점 역시 큰 찬사를 보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업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정부 예산과 종사자 규모, 국내의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면 '핵심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을 망라해 1순위에 놓고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충북처럼 지방소멸,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곳은 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은 그동안 이러한 과제와 지향할 지점을 함께 공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종사자, 지자체,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하길 기원합니다.

충북 복지 증진·사회통합 위한 길라잡이



연경환 충북일보 대표이사

충북사회복지신문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지난 1998년 창간 이래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과 도민복지의식 함양을 위해 정책정보 안내, 현안 진단·대안 모색, 도내 기관 소식 전달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복지 수요가 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 도내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충북사회복지신문의 존재는 도민에게 가슴의 단비같은 존재입니다.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지 전문지로서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도민, 도정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충북의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신 충북사회복지신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0호를 발간 삼아 500호, 1000호를 넘는 충북사회복지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많은 도민과 소통... 복지창구 역할



송승호 중부매일 대표이사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들과의 연계·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은 활동을 위해 충북사회복지신문이 발행되고 있으며, 신문발행으로 많은 충북도민들이 복지협회의 활동과 필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300호 발행을 계기로 600호, 1000호 발행을 기대하며, 더 많은 도민과 소통하며 복지협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 발전 끌어내는 마중물 되길...



조승남 충청일보 회장

신문 지령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회복지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일보도 지난 3월 1

일 창간 78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화환 대신 쌀 1686kg과 기부물품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등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청일보는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 사회적 빈곤과 격차 해소를 위해 충북사회복지신문과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물론 도민들의 사회복지 관련 일 권리 충족을 위해 발행하는 '충북사회복지' 신문이 발행을 거듭할수록 다양한 기획과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충북도민들과 만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독자퀴즈

- 충북사회복지신문의 창간년도는 언제일까요?
- 협의회 설립이후 역대회장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 신문봉사단의 봉사횟수와 총 봉사활동 시간을 적어주세요(ex, 몇회, 몇시간).
- 충북광역푸드뱅크의 우수기부 업체명은 무엇인가요?
- 도내 역사가 깊은 사회복지 법인명과 설립년도를 적어주세요.

제출기한: 2024. 5. 1(수) ~ 5. 31(금)  
당첨발표: 6. 7(금) \*개별 안내 예정  
답변 제출은 옆 큐알코드 스캔 또는 cbbokji043@naver.com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열매 충북지역사회공동모금회

(ESG특별성금 제외)

# 구석구석 114% 따뜻해졌습니다!

충북사랑의열매는 도내 3,510여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기부금의 114%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전해진 따뜻한 온기, 올해 사랑의 열매가 맺은 또 하나의 사랑의열매입니다.

따뜻한 나눔은도 달성현장

2023년 모금금액 18,849 백만원 (ESG특별성금 제외)

2023년 지원금액 21,494 백만원

지원 대상	4,555명	4,552명	1,514명	1,119명	4,282명	5,126명	346명
지원 분야	10,878명	1,250명	2,330명	928명	543명	2,250명	2,679명

2023년 충북사랑의열매에서는 지난해 214억9천4백만원으로 충북 내 3,510여개의 협력기관과 함께 약 22,802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k.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담 043-238-9100 지원 상담 043-238-9200

복지/만/평

상처

이창신 www.bokmani.com

아아! 물리적으로 난 상처는 곁에 생기지만

으악! 말로 받은 상처는 속에 생긴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